



편의점 CU와 제휴해 편의점 택배 픽업서비스를 정식 오픈한 티몬, 11분가의 '110분 무료배송' 프로모션, 롯데 계열 온라인몰에서 주문한 제품을 찾아갈 수 있는 세븐일레븐의 '스마트픽' 서비스. (왼쪽부터)

당일 도착? 110분내로 간다...배송 속도전

온라인쇼핑몰 배송 전쟁

가격경쟁 한계...빠른배송으로 승부 11분가, 주문 110분내 배송 서비스 편의점 연계한 주문형 배송도 치열

‘속도와 안정.’ 최근 불고 있는 유통 배송 트렌드다. 속도전이 더욱 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소비자 원하는 시간과 장소로 배송하는, 일명 ‘주문형’이 뜨고 있는 모습이다.

●속도 전쟁은 계속된다
배송 속도전쟁은 더욱 불붙고 있다. 쿠팡 ‘로켓 배송’, 티몬 ‘슈퍼 배송’ 등 주문 다음날 배달하는 ‘익일 배송’은 기

본. 위메프가 지난 8월 도입한 ‘당일 배송’을 넘어 최근에는 ‘110분 내 배송’까지 등장했다. 11분가가 지난달 시범 서비스한 의류·신발 제품을 주문 110분 안에 배송하는 서비스가 그것. 오토바이 픽업 서비스를 활용한 것으로, 내년 본격적인 도입을 검토한다는 게 회사 측 방침이다. 송승선 SK플래닛 리테일본부장은 “특급 배송의 첫 상품으로 의류·신발을 택한 것은 소비자가 마음에 드는 상품을 봤을 때 빨리 받아보고 싶은 상품이기 때문”이라며 “고객 반응을 본 뒤 내년 배송 정책에 반영할 것”이라고 했다.

이처럼 온라인쇼핑몰이 총알 배송 전쟁에 나서는 것은 가격 경쟁이 점차 한계에 달하면서 빠른 배송이 중요한 차별화 요소로 부각되고 있기 때문이

다. 업계 관계자는 “배송이 온라인쇼핑몰의 승부포인트로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온라인쇼핑몰의 장점인 제품 가격 차이가 점차 줄어들기에 더욱 그렇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안정 추구하는 주문형 배송이 뜬다
안정을 추구하는 움직임도 있다. 단 순히 빠른 배송이 아닌 소비자가 원하는 시간·장소에 배달해주는 주문형 배송이 주목받고 있는 것. 이는 1인 가구의 출몰에서 비롯됐다. 평일 대부분 집을 비우는 1인 가구의 경우 집 외 제3의 배송지를 택해 24시간 아무 때나 택배를 안전하게 수령할 수 있는 서비스를 선호하는 것이다. 이에 유통업계는 편의점과 연계한 배송서비스를 선보이고 있다. 전국 3만

여개 이상 점포를 보유한 편의점이 가장 접근성 높은 유통채널이란 점을 활용했다. 이베코코리아가 지난 9월 GS25와 맞손을 잡고 무인택배함 ‘스마일박스’를 운영한 것이 대표적 예다. 티몬은 편의점 CU와 제휴해 전국 단위 편의점 택배 픽업서비스를 정식 오픈했으며, 세븐일레븐은 롯데 계열 온라인몰에서 주문한 제품을 찾아갈 수 있는 ‘스마트픽’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 NS홈쇼핑은 관공서와 주주소 등 접근성이 편리한 곳에 위치한 무인택배함을 활용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1인 가구를 중심으로 반응이 뜨겁다”며 “온라인쇼핑몰에서 주문한 제품을 원하는 시간에 수령할 수 있는 만큼 배송 만족도가 크게 높아질 것”이라고 했다. 정정욱 기자 jay@donga.com

음성비서·20GB 영화 8초만에 전송... 내년 ‘상상이상의 혁신기술’ 나온다

2017년 ICT 10대 주목 이슈

‘인공지능(AD)과 ‘혼합현실(MR) 등이 내년에 주목할 만한 정보통신기술(ICT)로 꼽혔다.

KT경제경영연구소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국내외 ICT 시장의 주요 이슈와 트렌드를 전망하는 ‘2017년 ICT 10대 주목 이슈’ 특집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는 전에 없던 새로운 경험을 선사하는 혁신 기술이 등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음성비서를 통한 ‘인공지능’과 20GB 초고속화질 영화 한편을 8초 만에 전송할 수 있는 차세대 네트워크 ‘5G’, 현실 배경 위에 현실과 가상의 정

합을 재설계하는 ‘핀테크 2.0’과 개인용 플랫폼으로 진화하는 ‘온오프라인연결(O2O)’ 서비스,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데이터 커머스’ 등이다. 또 사물인터넷의 경쟁축이 될 ‘산업인터넷·소물인터넷’과 디지털 기술과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다양한 생산과 소비가 이루어지는 플랫폼 경제 등도 꼽았다.

하는 생체인증 등도 미래 10년을 이끌어 나갈 기술로 꼽았다.

보고서는 또 ‘진화형 서비스’들이 시장 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봤다. 내년 대 중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진화형 서비스로는 모바일 환경에서 소비자 중심의 금융을 재설계하는 ‘핀테크 2.0’과 개인용 플랫폼으로 진화하는 ‘온오프라인연결(O2O)’ 서비스,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데이터 커머스’ 등이다. 또 사물인터넷의 경쟁축이 될 ‘산업인터넷·소물인터넷’과 디지털 기술과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다양한 생산과 소비가 이루어지는 플랫폼 경제 등도 꼽았다.

KT경제경영연구소는 2007년부터 국내 통신 및 ICT 시장을 전망하고 관련 주요 이슈를 선정해 발표해 왔다. 이번 보고서는 정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한국인터넷진흥원 연구원들과 외부 전문가들이 함께 10대 주목 이슈를 도출했다. 김병근 기자

결합상품 과도한 경품 지급한 통신사에 ‘107억원’ 철회

방통위, 역대 최대규모 과징금 부과

이동통신과 초고속인터넷, IPTV 등 방송·통신 결합상품을 판매하면서 과도한 경품을 차별적으로 지급한 통신기업에 106억70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방통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6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의결했다. LG유플러스 45억9000만원, SK텔레콤 12억8000만원, SK브로드밴드 24억7000만원, KT 23억3000만원이 부과

다. 방통위는 또 과도한 결합상품 경품을 지급한 유선방송사업자에도 과징금을 내렸다. 사업자별로는 티브로드 1660만원, CJ헬로비전 630만원, 딜라이트 600만원 순이다.

방통위가 운영하는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허용 경품은 초고속인터넷 단품의 경우 19만원, 2종결합은 22만원, 3종결합 25만원, 4종결합 28만원이다. 하지만 조사 결과 해당 기업들은 가이드라인보다 평균 10만7000원 초과한

경품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7개 사업자의 평균 위반율은 39.2%이며, 가장 높은 위반율을 기록한 곳은 LG유플러스로 56.6%다.

한편 이번 과징금은 역대 최대규모다. 방통위는 지난 2011년 초고속인터넷 가입자를 모집하면서 과도한 경품을 지급한 SK브로드밴드와 KT, LG유플러스 등 3개사에 총 78억9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김병근 기자 dionys@donga.com

네오위즈게임즈 일인칭슈팅게임 ‘아이언사이트’ 20일 정식서비스

네오위즈게임즈는 위플게임즈가 개발한 PC 온라인 일인칭슈팅(FPS)게임 ‘아이언사이트’의 정식 서비스를 20일 시작한다. 현재 사전 공개 서비스를 하고 있는 아이언사이트는 근 미래를 배경으로 맵의 지형지물의 작동, 파괴 등 상호작용을 통해 역동적 플레이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드론을 정찰과 전투에 활용해 차별화된 전략의 재미를 준다. 네오위즈게임즈는 정식 서비스에 맞춰 신규 모드인 ‘자원 쟁탈전’과 ‘랭킹전’ 및 다양한 콘텐츠를 업데이트 할 계획이다. 또 차별점으로 꼽히는 캐릭터 커스터마이징 아이템 13종과 신규 스킨 무기 7종, 신규 무기 3종도 추가로 영구제 무기 획득과 기념품을 증명하는 이벤트도 보인다. 김병근 기자

고객정보 유출 인터파크도 과징금 ‘45억원’

1000만명 이상의 고객 정보를 유출한 온라인쇼핑몰 인터파크가 45억원의 과징금을 내게 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6일 경기도 과천

정부 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정보통신방법을 위반한 인터파크에 과징금 44억8000만원, 과태료 2500만원 등 모두 45억50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이는 고객 정보를 부실하게 관리한 기업에 물리는 과징금으로 역대 최대 액수다. 그간 개인정보 유출 사건 관련 과징금은 보통 1억원 이내였지만, 2014년 정보통신방법 개정으로 제재가 강력해졌다. 정정욱 기자

경제현장.jpg 세계 4개대륙 대표와인인 1만원대라고?



출판사는 와인 소비가 많은 연말을 맞아 8~28일 ‘월드 와인 페스티벌 2탄’을 연다. 전 세계 4개 대륙의 대표 와인을 1만원 대에 소개하는 ‘슈퍼스타4 시리즈’ 일환으로 ‘리얼한 패키지’를 1만 한정 세트에 내놓았다. 가격은 1만8900원. 모델들이 6일 홈플러스 강서점에서 ‘슈퍼스타4 시리즈-리얼한 패키지’를 선보이고 있다. 정정욱 기자·사진제공:1홈플러스

KB국민카드 10일 강남역서 플라마켓...SNS스타 33명 참가

KB국민카드는 10일 서울 강남역 인근 모나코 스페이스에서 플라마켓(벼룩시장) 행사를 연다.

KB금융그룹 통합 멤버십 플랫폼 ‘리브 메이트’ 출시 기념이다. SNS의 유망 인사 33명이 참가해 향수·가방·선글라스 등을 판매하며, 행사장 방문 고객들은 ‘리브 메이트’를 통해 상품을 구입할 수 있다. 선착순 1000명에게 1000원에 1000포인트를 제공하고 5000포인트를 제공하고 경매 및 퀴즈 이벤트도 진행한다. 정정욱 기자



힘이 약하고, 중간에 시들어, 잘 안된다?!!

시도 때도 없이, 강한남자 뉴맨!!

동서고금. 남자의 힘!

수세기 전부터 동서양을 막론하고 많은 남성들은 약해져 가는 성기능을 강화시키기 위하여 옥이나 실리컨 등으로 만든 링을 사용해 왔습니다. '뉴맨'은 이러한 기존 링을 모토로 단점과 약점을 보완하고 효과와 안전성은 극대화시켜 대한민국 특허청에서 '남성 성기능 강화용 링'이라는 명칭의 발명특허를 획득 하였습니다.

왜소하고 빠르거나 나이가 들어가면서 발기강직도가 약해지고 중간에 시드는 현상으로 고민인 남성들에게, 작용즉시 더 크고 강하며 중간에 시들지 않고 보다 오래 사랑을 나누도록 확실한 효과를 드립니다.

2005년 첫 출시 후 현재까지 11년 지속 성장, 일본과 중국에 지사 설립, 전 세계 20여개국 수출, 누적고객 120만이라는 기적같은 성공을 이룬 '뉴맨'은 힘이 있어서는 최고의 남자를 만들어 줄 것입니다.

누적고객 120만! 20여개국 수출!

15일 사용후 효과 없을시 100% 반품·환불!

11년간 지속된 고객과의 약속입니다.

※ 사이즈를 약 5~7mm정도 조정할 수 있도록 이중설계 되었습니다.

개폐장치
본드 부착방식이 아닌 보석용접방식으로 반영구적 천연자수정
자석(약700가우스) 두께3mm의 얇은 본체에 특허기술로 진공 내장
본체(순은)

※ 본 제품은 의료가기가 아닙니다.

특허 제 10-0756243 호 (PATENT NUMBER)
발명의 명칭 (TITLE OF THE INVENTION) 성기능 강화용 링

※ 국내 최초 유일 특허 ※

평상시 사이즈	누름 호수
6.5이하	주문 제작
6.5cm	1호
6.8cm	2호
7.1cm	3호
7.4cm	4호
7.7cm	5호
8cm	6호
8.3cm	7호
8.6cm	8호
8.9cm	9호
9.2cm	10호
9.5cm	11호
9.8cm	12호
10.1cm	13호
10.4cm	14호
10.7cm	15호
11cm	16호
11.3cm	17호
11.6cm	18호
11.9cm	19호
12.2cm	20호
12.5cm	21호
12.8cm	22호
13.1cm	23호
13.4cm	24호
13.7이상	주문 제작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조 www.newm.kr ※ 뉴맨홈페이지에 2,000건 이상의 사용후기가 있습니다. T. 1588-3346, 010-8020-3346

서울시 서초구 바우포로23 신일빌딩 6층 (주)케이엔케이 동산빌대 6기 제2015-서울서초-1790